

베일, 7년 만에 토트넘 복귀 공격 삼각편대 'KBS' 구축

〈케인-베일-손흥민〉

1년 임대·등번호 9번...10월 A매치 기간후 합류



가레스 베일

가레스 베일(31·웨일스)이 7년 만에 토트넘(잉글랜드) 유니폼을 입는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등번호 9번 유니폼을 들고 있는 베일의 사진과 함께 계약 소식을 전했다. 2020~2021시즌 '임대' 외에는 세부적 계약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이 월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 임대료로 2000만 파운드(약 300억 원)를 지불하고 연봉의 일부를 부담한다. 또 베일의 활약 여부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옵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사우샘프턴을 통해 프로에 데뷔한 베일은 2007년 토트넘에 입단해 6시즌 동안 총 203경기에 출전해 55골을 터트리며 정상급 공격수로 성장했다. 2013년 당시 역대 최고 이적료인 8500만 파운드에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니폼을 입었다. 입단 초기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와 함께 'BBC 라인'을 구축해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전성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잦은 부상과 구설수로 지네티 지단 감독의 눈 밖에 났다. 지난해에는 중국 슈퍼리그 장쑤 쑤닝으로 이적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다.

결국 새 시즌 전력 외로 분류된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 탈출을 결심했고, 7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했다. 베일은 "토트넘 유니폼을 다시 입게 돼 행복하다. 내겐 정말 특별한 팀"이라며 "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을 경험했다. '위닝 멘탈리티', '우승하는 법' 등을 배웠다. 그걸 토트넘에 전해주고 싶다. 이곳에서 우승컵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베일의 영입으로 토트넘은 해리 케인, 손흥민과 함께 'KBS'로 불리는 공격 삼각편대를 구축하게 됐다. 다만, 부상으로 베일의 복귀전은 한 달 뒤나 가능할 전망이다. 토트넘은 "베일이 이달 초 웨일스국가대표로 뛰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10월 A매치 기간이 지난 뒤에야 경기에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트넘은 베일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에서 측면 수비수 세르히오 레길론(스페인) 영입에도 성공했다. 이적료 2500만 파운드(약 375억 원)에 5년간 계약한 레길론의 등번호는 3번이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강원, 수원에 1-2...파이널A 진입 결국 실패

'누더기 홈구장'이 더 야속한 병수볼

곳곳이 폭폭 패인 강릉종합운동장 킬패스·전방위적 빌드업 안 통해 홈 어드밴티지 대신 '내부의 적' 수원 악몽까지 겹쳐 충격 역전패

리드미컬한 패스, 전방위적인 빌드업, 유기적인 공격 전개. 김병수 감독이 이끄는 K리그1(1부) 강원FC가 추구하는 팀 컬러다. '하나원큐 K리그1 2020' 파이널 라운드 그룹A(1~6위) 진입과 별개로 강원은 나름의 경쟁력을 발휘하며 충분히 선전해왔다.

그러나 강원에는 가장 무서운 적이 따로 있다. 홈 어드밴티지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그라운드다. 수원 삼성과 22라운드 홈경기가 열린 20일 강릉종합운동장은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이었다.

"잔디를 걷어내고 흙을 파서 보물이라도 숨겨놓지 않았느냐"는 뼈있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현장 상태는 처참했다. 터치라인 주변과 골에어리어, 하프라인, 골문 한복판 등 폭폭 패인 지역이 너무 많았다. 그나마 잔디 높낮이도 일정치 않아 이날 두 팀은 90분 내내 플레이에 애를 먹었다.

특히 강원의 최대 장점인 킬 패스는 끝



강원이 유리했던 6위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20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1부) 22라운드 수원과 홈경기에서 쓰러린 1-2 역전패를 당해 순식간에 8위로 밀려났다. 곳곳에 흙이 드러난 최악의 홈그라운드 사정이 패스 위주의 축구를 펼치는 강원에는 악재로 작용한 결과다.

강릉 | 남정현 기자

기기 일수였고, 누구든 킥을 시도하면 큰 흠땀이 났었다. 바운드로 일정치 못해 리바운드 볼은 서로가 사실상 포기할 지경이었다. 스프링클러가 전·후반전 킥오프를 앞두고 작동하며 수분을 공급했지만, '임시처방'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었다.

문제는 강원의 누더기 그라운드가 강릉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원은 올해 강릉과 춘천을 오가며 홈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춘천 역시 상태는 전혀 다르지 않다. 5월 10일 홈 개막전을 치른 춘천은 그 후 그라운드 잔디를 교체

했다. 그런데 여름 내내 지속된 긴 장마와 폭우, 폭염, 태풍까지 겹쳐 제대로 뿌려 내리기도 전에 많은 곳이 썩어버려 헛수고만 한 꼴이 됐다.

이렇듯 원하는 패턴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홈 승률도 낮다. 이날 경기 전까지 안방에서 3승3무4패에 그쳤던 강원은 이날 수원에도 1-2 역전패를 당해 목표포 삼았던 그룹A 진입에 끝내 실패했다. 7월 12일 광주FC를 4-1로 격파한 것이 강원의 마지막 홈 승리다.

2위 전북 현대를 올 시즌 2번 모두 잡

고, 1위 울산 현대와 대등하게 싸운 강원이지만 수년 동안 지속된 수원과의 악연과 악몽이 거짓말처럼 반복돼 충격이 배가됐다. 강원은 지난시즌부터 수원을 상대로 5경기 연속 무승(2무3패)이고, 역대전적에서도 4승5무14패로 절대 열세다.

누더기 잔디라는 내부의 적, 수원이라는 외부의 적이 꿈이 가로막힌 김 감독은 "오늘의 패배는 쉽게 털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릉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프라이부르크〉

분데스리가 개막전 88분간 펄펄...정우영, 경쟁력 증명

'압박과 연결'로 공수 모두 합격점
컵대회 이은 맹활약 팀내 입지 높여

정우영(21·프라이부르크)이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달라진 팀 내 입지를 증명했다.

정우영은 19일(한국시간)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에서 벌어진 2020~2021시즌 분데스리가 1라운드 슈투트가르트와 원정 경기에 선발출전해 88분간 뛰며 팀의 3-2 승리에 기여했다. 후반 43분 벤치로 물어나기 직전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수에서 모두 팀 공헌도를 높였다. 수비에선 전방압박을 적극 펼쳐 상대 수비수들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볼을 빼앗아 역습으로 이어나가는 등 적극적 움직임이

인상적이었다. 그 덕에 프라이부르크는 전반을 2-0으로 앞서는 등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공격에선 정확한 패스를 앞세워 볼을 최전방 공격수들에 연결하는 데 집중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전반 26분에는 측면에서 정확한 패스로 팀이 추가골을 뽑는 데 시발점 역할을 했다.

2019~2020시즌을 앞두고 프라이부르크 유니폼을 입은 정우영은 주전경쟁에서 밀려 출전기회를 잡지 못했고, 겨울이적시장 때 바이에른 뮌헨 2군으로 임대된 때였다. 출전시간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프라이부르크로 복귀했으나, 2020~2021시즌에도 임대 가능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프리시즌 무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쳐 코칭스태프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다. 14일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에 선발출전해 측면 날개로 좋은 기량을 과시했다.

분데스리가 개막전 선발출전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달렸다. 포칼은 컵대회고, 상대팀도 약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깨고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도 베스트11에 포함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1군 무대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정우영과 한솔밥을 먹고 있는 권창훈은 후반 32분 교체로 투입됐다. 포칼에서 시즌 첫 골을 뽑았던 권창훈은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출전시간이 짧았지만 괜찮은 경기력을 뽐냈다. 아쉽게 2경기 연속골에는 실패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프라이부르크 정우영(왼쪽)이 19일(한국시간) 2020~202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와 원정 개막전에 선발출전해 공수에 걸친 안정적 활약으로 팀에 3-2 승리를 안겼다.

사진출처 | 프라이부르크 트위터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1조원 기부 TV'(1, 2부)
동영상 시청 후 문의 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동물병원 및 각 등록처에서 등록한 개,고양이, 1가구 1마리만 2020년 9월 28일까지 선착순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총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 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월렛이거부 품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총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종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한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춘자 010-9339-8649 / 신바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90-8801 / 강명석 010-3274-5289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민 010-4741-7008
초원교 010-7374-4111 / 서재윤 010-8770-2935 ●대전 김원구 010-8029-0059 / 김운한 010-3742-5998 / 진달란 010-2391-8259 ●대구 단영희 010-4846-4950
●울산 지영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천안 김태덕 010-6258-3510 / 오영호 010-8804-3424
●인천 박준표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포중 010-8488-2999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이천 허현석 010-4707-2659
한신회 010-5177-9479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수원 한민드라마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영대 010-8005-3616
●경기 남부 한베트도 010-6806-1931 / 노수림 010-5153-5983 ●영광 교명철 010-5463-6952 ●충북 송중옥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하위아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